

정월대보름제

장터만세운동

노인일자리발표회

특별기획 '어울림전'

유성, 함께 만드는 문화

〈늘푸른장애인센터〉 김혜환 시설장

유성 북로드(Book Road)

오케이 슬로울리, 공유서재 오후, 버찌책방

이 강좌는 어때요?

다이어트밸리댄스, 우리춤체조

댄스스포츠(알츠), 토탈캘리그라피

가야금병창

문화유성 아틀리에

4기 기자단, 이야기의 시작

문화유성

2025 Vol. 231

www.yuseong.or.kr



02



02 정월대보름제

05 장터만세운동

08 노인일자리발표회

11 특별기획 ‘어울림전’

05



14 유성, 함께 만드는 문화

<늘푸른장애인센터> 김혜환 시설장

16 유성 북로드(Book Road)

오케이 슬로울리, 공유서재 오후, 벼찌책방

11



22 이 강좌는 어때요?

[홍지성] 다이어트밸리댄스

[최민희] 우리춤체조

[박경민] 댄스스포츠(왈츠)

[양영] 토탈캘리그라피

[복선영] 가야금병창

32 문화유성 아틀리에

35 4기 기자단, 이야기의 시작

2025 정월대보름제

떡메도 치고 소원도 빌고…
유성문화원의 따뜻한 정월대보름

—
유성문화원 이덕성 기자



2025년 2월 12일(수) 10시부터 12시까지 유성문화원 주차장과 1, 2층 행사장에서 유성문화원 정월대보름제를 다양한 전통 문화 체험과 놀이를 통해 한 해의 행운을 빌며 지역 주민들과 어린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가 열렸다.

유성문화원, 정월대보름 맞이 전통문화 행사 성료

유성문화원이 주최한 정월대보름 맞이 전통문화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유성구민들과 방문객들에게 우리 전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어린이 200여 명이 행사에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몸소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행사는 유성풍물연합회의 공연으로 시작되었다. 단원들은 신명 나는 풍물 가락과 흥겨운 장단을 선보이며 한 해의 액운을 떨쳐내고 좋은 기운을 불러오는 의미를 전했다. 관객들은 함께 박수를 치며 전통 가락에 맞춰 어깨를 들썩이며 공연을 즐겼다.

이어진 전통 놀이 및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청사초롱 만들기, 병풍 제작, 풍물 체험 등이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직접 전통 공예를 체험하며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고, 특히 어린이들은 자신의 손으로 만든 작품을 자랑스러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떡메치기 체험도 많은 관심을 끌었다. 참가자들은 전통 방식으로 인절미를 만들며 직접 떡을 찧는 체험을 하면서, 우리 조상의 생활문화를 몸소 경험할 수 있었다. 특히 어린이들은 떡메를 힘차게 내리치며 즐거워했고, 가족과 함께 만든 인절미를 나눠 먹으며 정월대보름의 의미를 더욱 깊이 되새겼다. 이외에도 부럼깨기와 귀밝이술 시음이 진행되어 한 해의 건강과 복을 기원하는 전통 풍습을 경험할 수 있었다.





유성문화원 관계자는 “많은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즐길 수 있어 더욱 뜻깊은 행사였다”며 “앞으로도 전통문화를 알리고 계승하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정월대보름 행사는 한 해의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는 우리 고유의 명절 행사로,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더욱 친근하고 의미 있는 경험을 선사했다. 유성문화원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전통문화를 소중히 가꾸고 이어가는 데 앞장설 예정이다.



2025 유성장터만세운동

유성에서 되살아난 106년 전 독립의 외침

유성문화원 박성혜 기자



대전 유성구는 지난 14일 유성시장 내 장터놀이터에서 ‘2025 유성장터 만세운동 및 의병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919년 유성시장에서 펼쳐졌던 독립 만세운동을 기리고 순국선열들의 애국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주민 300여 명이 참여해 당시 만세운동을 재현하는 거리 행진을 펼쳤으며, 3·1 독립선언서 낭독과 만세 삼창이 이어졌다. 또한 성악과 관현악 공연, 어린이들을 위한 태극기 체험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참가자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선사했다.



역사적 배경과 유성장터 만세운동의 의미

유성장터 만세운동은 1919년 3월 16일, 유성구 지족리에서 이상수·이권수 형제가 대형 태극기를 게양하고 유성시장으로 나가면서 시작됐다. 당시 유성시장에는 장날을 맞아 많은 주민들이 모여 있었고, 이들은 하나같이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이는 대전지역에서 일어난 가장 큰 독립운동 중 하나로,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며 일본의 식민 통치에 맞서 싸운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후 3월 31일과 4월 1일, 독립을 향한 뜨거운 의지는 더욱 강렬해졌다. 주민들은 일본 현병 주재소를 습격하며 저항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일본 현병은 무력으로 진압하며 밭포까지 감행했고, 그 과정에서 한 명이 희생되고 많은 이들이 체포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유성장터 만세운동은 대전 지역에서 독립운동의 불씨를 지피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025 유성장터 만세운동·의병제 행사 주요 내용

이번 행사에서는 당시의 만세운동을 재현하는 퍼레이드가 진행되었으며, 참여한 주민들은 106년 전 독립운동가들의 용기와 희생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3·1 독립선언서 낭독과 만세 삼창은 물론, 다양한 문화 행사가 펼쳐져 행사를 찾은 시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태극기 체험 행사와 역사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젊은 세대에게 독립운동의 의미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성악과 관현악 공연은 참가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으며, 전통무용과 독립 운동가의 삶을 그린 연극 공연도 열려 역사적 사실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했다.

제106주년 삼일절 기념 유성장터 만세운동 재현 행사

대전 유성문화원은 14일 유성구 일대에서 제106주년 삼일절을 맞아 유성장터만세운동과 유성의병봉기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3·1만세운동 재현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구암역에서 시작된 만세행진을 통해 그날의 뜨거운 함성을



재현했다. 시민, 학생, 보훈단체, 독립운동가 후손 등이 참여해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외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행진 도착지인 장터놀이터에서는 독립선언서 낭독, 삼일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의 기념식이 열렸으며,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팬시태극기 만들기와 스티커붙이기 체험부스가 마련돼 역사 교육의 장이 되었다.

행사의 마지막은 오페라가수 손차윤의 교향곡 '독립선언문' 중 '윤봉길 아리아 대장부의 길'과 '뮤지컬 이순신' 중 '나를 태워라'의 감동적인 무대로 이어졌다. 또한, 유성문화원 소속 유성원드오케스트라가 '그리운 금강산', '한밭행진곡' 등을 연주하며 의기 넘치는 힘찬 관악공연으로 대미를 장식했다.

지역사회와 독립운동 정신 계승

이재웅 유성문화원장은 "유성장터 만세운동과 의병제는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 정신을 보여주는 소중한 유산"이라며 "앞으로도 이를 널리 알리고 계승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용래 유성구청장 역시 "유성장터에서 시작된 독립 만세운동은 유성의 자랑스러운 역사"라며 "선열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기리고, 이분들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역사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유성구

유성장터 만세운동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독립을 향한 그날의 외침은 오늘날에도 정의와 자유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이번 기념 행사는 단순한 재현을 넘어, 지역사회가 독립운동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유성구는 이러한 뜻깊은 행사를 통해 후손들에게 역사적 교훈을 전하고,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12월 3일 오후 2시 유성문화원(원장 이재웅) 2층 다목적실에는 202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한 4개 사업단 80여 명이 자리 함께했다.

손새롬이 과장이 진행한 1부는 국민의례와 유성문화원 김기동 부원장의 축사, 김동수 구의장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손새롬이 과장은 “유성문화원은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유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전수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를 통해 건강 개선 및 사회적 관계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 사업입니다”라고 말했다.



손새롬이 과장



김기동 부원장



김기동 부원장은 “2024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한 어르신 여러분, 이렇게 한해를 돌아보는 축제의 시간 발표회를 갖게 된 것을 유성문화원 이재웅 원장을 대신해 격려하며 축하합니다”며 “노인 일자리 사업단 유성이알림단, 유성이합창단, 유성이행복단, 유성이전통단 참여자 어르신들의 활동에 대해 유성문화원은 각별한 기대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각 사업단은 열심과 열정으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자발적으로 연습하므로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를 수행하므로 참여자 여러분을 스스로가 높은 자부심과 성취감을 경험하는 노인 일자리가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며 “앞으로 유성문화원도 노인 일자리 사업과 더욱 협력해 지역문화를 계승 전수 발전하도록 힘쓰겠습니다”고 인사했다.

이어 2024년 올 한 해 25개가 넘는 다양한 수요처, 행사를 통해 활동한 4개 사업단의 지난 11개월간 활동을 영상으로 보는 시간을 가졌다.

유성이행복단 이바울 씨가 진행한 2부 순서가 이어졌다. 가장 먼저 김영애 단장, 오현정 총무의 카리스마와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룬 리더십과 식지 않은 열정의 소유자 강성완 지휘자, 예리한 청음과 미소를 가진 반주자 강옥복 씨 등 21명이 음악을 사랑하고 합창을 통해 병원, 주간보호센터, 요양원, 지역축제 등에서 활동하는 것이 행복하다며 「캐럴송」, 「아침이슬」, 「유성의 노래」 등 세 곡을 열창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어 유성이행복단 송예주 씨가 모정애의 「인생」을 선물했다. 이바울 진행자는 우리 인생사를 돌아보게 해주는 가슴에 와닿는 감동의 노래라고 소개했다. 유성이행복단은 아름다운 미모와 가창력, 입담 등 재능을 갖춘 단원들 보면 정말 시대를 잘 태고났으면 이곳에서 보기 힘든 분들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 팀으로 신순남 단장이 이끄는 유성이알림단 12명은 이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연극, 인형극, 그림자 인형극 등으로 꾸며 발표한다며 「호랑이가 업어다 준 수절과부」를 손인형극으로 선보였다. 사람보다 큰 호랑이가 등장할 때는 보는 이들을 놀라게 했다.

이어 유성이행복단 서한택 씨가 백승태의 「부두의 여인」을 불렀고, 한승일 단장과 강희복 총무를 중심으로 4개 조로 나눠 활동하는 유성이전통단이 우리 전통문화 「병풍 만들기」를 참여자 모두와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유성구 지역의 복지시설 어르신들께 위로와 따뜻한 마음을 신나는 트로트로 전달하는 정인자 단장과 이규한 총무가 이끄는 유성이행복단이 대한민국 어르신의 애창곡 「내 나이가 어때서」를 함께 부르며 발표회를 마쳤다.

**2024 유성문화원 특별기획 합동전시회
어울림전**

유성문화원 이덕성 기자

이재웅 문화원장

첼리스트 유송희의 개회식 축하연주

개회식 테이프 커팅식

시민들이 함께하는 힐링 전시

2024년 12월 17일부터 12월 22일까지 유성문화원 1층 전시실에서 유성구에 거주하거나 소재지를 둔 단체, 팀 중에서 공모를 통해 5개팀을 선정해서 전업 작가와 아마추어의 경계 없이 다 함께 어울려진다는 뜻의 “어울림전”을 특별기획 학동 전시회로 개최하여 많은 시민들이 관람하고 힐링하는 전시회가 되었다.

이재웅 문화원장은 이번 특별기획전의 의미를 되새기며 “귀한 시간 내어주신 모든 분들과 작품을 준비 해주신 작가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간단한 다과와 연주, 전시가 준비되어있으니 편안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전시장을 찾은 한 시민은 “작품을 보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위로받는 느낌이었다”며, “전문 작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한 전시라 더 친근하게 다가왔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관람객은 “예술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았다”며 이번 전시의 의미를 되새겼다.

대전보태니컬아트 동호회

(김은영·서다인·이상화·이선희·전영미·편선주·한재훈)

대전 보태니컬아트 동호회는 그 누구보다 식물을 사랑하고 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꽃과 식물을 아름답고 세밀하게 그리고자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 일반회원이 함께 색연필만을 이용하여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완성한 화려한 꽃과 열매, 식물 등을 감상할 수 있었다.

작품노트

'보태니컬 아트'는 식물학을 뜻하는 보태니컬 (botanical)과 예술 미술을 뜻하는 '아트(Art)'가 결합한 단어로, '식물의 고유한 특징을 포착해 사실처럼 섬세하게 그려내는 그림분야'를 의미한다.



박성혜

대전 시민으로서 꿈다락 문화예술학교인 관저로에 불빛이 커지면 교육과정을 통해 도예 창작을 익히고 수강생들과 '다온 갤러리'에서 단체전을 개최한 경험이 있다. 평소 예술분야에 관심이 많고 꾸준히 작품 활동에 매진중이다. 내 작품으로 기쁨과 용기를 주고 싶고, 경기가 안 좋은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은 게 나의 꿈이자 작은 바람이다.

작품노트

가족들과의 즐거운 추억!

가족들과 크리스마스 이브에 대전 불빛 축제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생각이 난다. 그리고 사랑과 화합을 상징하는 '새'와 '나무'를 주제로 만들어진 handmade 도자기 인테리어 조명이다.



박은정

과거를 알면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법고창신의 정신으로 우리나라의 보물, 전통공예가 이 시대에 맞는 진화, 발전의 수순을 밟길 바라는 옷칠공예가이다.



송은실(현 꽃닭세밀화가협회 이사장) 손병선(꽃닭세밀화가협회 이사)

경이로운 식물의 모습을 관찰하고 아름답게 표현하는 우리. 순간의 아름다움을 포착해 그리기도 하고, 한 장의 종이에 1년간의 식물의 모습을 표현하기도 한다. 식물을 순간의 즐거움에서 하나의 소중한 생명체로서 바라보고, 관찰의 기쁨을 알리는 우리는 '식물세밀화가'이다.

작품노트

유성구에 이사 오고 맞이한 낯선 겨울, 공원어귀에서 마음에 드는 스트로브잣 열매를 주워 그렸던 게 7년 전이다. 첫 창작 식물 세밀화를 이곳에서 시작해 이젠 식물세밀화가로 발돋움하고 있다. 자연 속 살아있는 식물들을 많이 간직한 유성구. 내 손에서 식물세밀화로 다시 피어나 기억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최연아

눈으로 본 세상을 색으로 표현하고 싶다. 때로는 사진보다 그림으로 기억하는 것이 뚜렷하게 남는데, 내가 기억하는 정물의 기억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며 각각의 해석을 구하고 싶다. '예술은 생활 속의 그림을 통하여 누구나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세계'를 추구하고자 하고, 단순한 시각적 아름다움을 넘어 감각과 정서를 옮기는 예술적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작품노트

작품 '연꽃'은 연꽃이 피어나는 순간의 생동감과 섬세한 꽃잎의 구조를 캔버스 위에 담아내며 생명의 희망과 가능성은 나타내고자 하였다. 작품 '황혼'은 석양의 따스한 빛이 하늘과 땅을 물들이며 다채로운 색채로 자연을 채색하는 순간을 그리고 오렌지, 분홍, 보라색으로 이어지는 색의 그라데이션은 황혼의 감동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노트

작품 '매화문경대'는 미덕, 고결, 정절을 의미하는 꽃말인 '매화'와 경대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 착안했다. 나전기법을 바탕으로 채화, 색분기법 등을 활용하여 화려하면서도 절제가 느껴지도록 표현하였다. 작품 '비마중'은 '비를 나가 맞이하는 일'의 순우리말로 비로 인해 순간순간 반짝이는 모습을 받침에 표현하였으며, 작품 '혜옹'은 옷칠과 나전기법으로 따뜻하면서도 사랑스러운 느낌이 들도록 하였다.



김혜환 시설장

늘푸른 장애인 단기거주 시설장과의 만남

유성문화원 황인동 기자



김혜환 시설장

대전 유성구 계산동! 겨울 햇살이 포근히 대지에 내려앉는 곳! 언제나 따뜻한 푸르른 사랑의 잎이 마르지 않는 마당이 있는 주택! 그 곳에 늘푸른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이 있다. 이곳을 운영하고 있는 별빛 같은 김혜환 시설장(이하 김시설장)과 만났다.

김시설장은 태안에서 태어났다. 대전에서 시부모님이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닮아갔다. 함께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 이를 계기로 사회복지를 공부하여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부모님이 작고하시고 살던 집을 활용하여 장애인 시설 인가를 받았다.

“사랑, 나눔, 섬김”이라는 원훈 아래 가정에서 생활이 어렵고 일상생활과 사회적응이 어려운 장애인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하고 있다. 또한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장애인 가족이 안심하고 사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항상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장애인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 이웃사랑과 섬김의 실천을 통해 정성을 다해 보살펴 주고 있다. 이곳 시설에서 장애를 겪는 이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시설연혁

- 2009년 11월 “임마누엘의 집”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시설신고 및 운영
- 2016년 4월~6월 시설 재정비 및 확장으로 명칭 변경 신청
- 2016년 7월 “늘푸른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거주시설 변경 설치 신고 완료
- 2016년 8월, 정원 10명으로 시작해 이듬해 직원 1명을 배정받음, 행정, 회계 등 업무를 나눠서 하고, 시설장은 밤 근무를 담당
- 2025년 현재 시설장에는 장애인 8명과 직원 4명, 봉사자 등이 있음, 시설에는 주·야간 근무와 명절 등 다양하게 근무



프로그램 안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즐거움을 더한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기초 생활능력을 지도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사회 적응 훈련 서비스

사회성 향상 및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시설견학, 공연관람, 스포츠 관람, 계절프로그램 진행)

부모 상담 및 교육

장애 아동 치료 및 교육이 가정에서 연계될 수 있도록 부모 상담을 통해 장애 이해에 대한 재활교육 지원

화단 가꾸기 및 주말농장 프로그램

늘푸른의 넓은 화단과 주변에 주말 농장을 이용하여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지원

작업치료도구를 이용한 인지능력 향상

장애유형 및 개인적 상황에 적합한 언어 및 미술 심리 재활 등을 적절하게 지원(언어, 미술, 음악치료 프로그램 운영)

시설의 운영과 지원은 시에서 지원금을 받고, 운영비와 고정비용을 충당한다. 비영리단체이며 후원금을 통해 투명하게 사용한다. 명절에 집에 못 가는 원아는 시설에 머무른다. 사명감을 가지고 직원들을 잘 섬긴다.

장애인 요양원의 지원과 혜택은 주택에 사는 동안 안정적인 보호를 받는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교육 지원 서비스, 금전 교육 등을 제공한다. 배달 강좌는 외부 파견을 통해 진행한다. 요리 활동, 햄버거, 피자 만들기, 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야외 활동, 여름 프로그램, 수영장, 청소 등 다양한 활동이 있다. 문화시설, 관광 등의 행사도 있다. 장애인들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폭력적인 언행을 하기도 한다. 직원이나 동료와의 의사소통이 어려울 때도 있다. 장애인 요양원에 대한 지원과 혜택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시설장의 삶

김시설장은 사회 복지사로 일하며 느낀 보람도 많다.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보살피면서 사명감과 행복을 느낀다. 사회에 헌신하니 더욱 충실히 온몸으로 체감한다. 장애인 시설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어려움도 많이 겪었다. 밤잠을 설치며 보살핀 경우도 많다. 장애인들이 하루 하루 살아가는 모습에서 기쁨과 보람을 마주한다. 우리 사회의 소외된 사람들이 더욱 안온하고 평화로운 삶이 이어지길 바래본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해내고 있는 시설장에게 존경의 마음을 담아 보낸다. 언제까지나 건강이 함께 하길 바라면서...

오케이 슬로울리

바쁜 일상 속
한 페이지의 여유

대전 독립서점을 통해 느림의 미학을 배우다

유성문화원 조윤서 기자



오케이 슬로울리 내부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위치한 독립서점 ‘오케이 슬로울리’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여유’와 ‘꾸준함’의 가치를 전하는 공간이다. 우리는 빠르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종종 자신만의 속도를 잃어버리곤 한다. 하지만 ‘오케이 슬로울리’에서는 일상의 속도를 늦추고 그 느림 속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돋는다.

2023년 6월 7일에 문을 연 ‘오케이 슬로울리’는 디자인 스튜디오와 독립서점의 기능을 겸하는 공간이다. 서점 운영자는 4년간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하다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해져 스튜디오와 책이 어우러진 서점을 열었다. 서점은 ▲디자인 ▲사진 ▲예술 ▲문학 분야의 도서를 중심으로 ‘곁에 두고 싶은 책과 제품’을 소개한다.

‘오케이 슬로울리’의 운영 철학은 서점 이름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It’s okay to be slowly(천천히 해도 괜찮다)”라는 브랜드 메시지는 삶의 속도가 달라도 괜찮다는 운영자의 신념을 반영한다. 이처럼 ‘오케이 슬로울리’는 단순한 도서를 판매하는 공간에서 벗어나, 여유를 찾고 예술을 경험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오케이 슬로울리’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서점 운영자는 15년 넘게 필름사진을 촬영해 왔으며 필름 아카이빙 플랫폼 ‘필름로그’의 대전 드롭포인트로 활동한다. 서점 방문객들은 필름 구매 및 현상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업사이클 카메라 등 필름 관련 제품도 만나 볼 수 있다.

매달 열리는 다양한 전시 또한 ‘오케이 슬로울리’의 특징 중 하나다. 서점에서는 ▲사진전 ▲그림책 원화전 ▲일러스트 전시 ▲브랜드 전시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올해 3월 11일부터 4월 12일까지는 송광찬 작가의 <Small store 작은 가게, 가까이>가 열리고 있으며 4월 15일부터는 ‘함께하는 사진전’의 첫 번째 전시로 <여행의 장면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 서점에 책을 읽고 사색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도 마련돼 있다. ‘공유 테이블’은 현장 결제로 이용 가능하며 ‘비워둔 테이블’은 예약제로 운영된다. ‘비워둔 테이블’은 혼자만의 시간을 원하는 방문객을 위해 이용요금(6,000 원)을 지불하면 공유서재와 음료가 제공되며 최대 3시간 이용 가능하다. 서랍 속 방명록에는 이곳을 찾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남겨져 있어 색다른 형태의 책처럼 읽히기도 한다.

올해도 ‘오케이 슬로울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작년부터 운영해 온 온라인 글쓰기 프로그램 ‘okay write slowly’는 현재 7기가 진행 중이며 참여자들은 매주 글을 작성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올해부터 시작된 구독제 북클럽 ‘천천히 오래오래’ 프로그램은 현재 1기를 진행 중이며 3개월 간 참여자끼리 총 3권의 책을 읽으며 깊이 있는 독서를 경험하게 돋는다.

오케이 슬로울리 운영자는 “글, 그림, 사진으로 남기는 ‘꾸준한 기록’의 힘을 믿는다. 서점에 방문하는 이들 개인의 창작을 응원한다”라며 “브랜드가 갖는 메시지처럼 삶의 속도가 달라도 괜찮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라고 서점을 찾은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했다.

이처럼 ‘오케이 슬로울리’는 여유와 느림의 미학을 배우고 창작과 예술을 통해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이다. 바쁜 일상 속 잠시 쉼을 갖고 싶은 이들에게 ‘오케이 슬로울리’는 꼭 한 번 들려볼 가치가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서점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자연스레 자신만의 여유를 되찾는 나 자신을 만나보게 될지도 모른다.



공유서재 오후

공유서재 오후에서 나를 사유하는 시간

유성문화원 한성희 기자

책과 음악이 흐르고 조용한 공간, 천천히 다정하게 사는 삶을 지향하는 공간. “공유 서재 오후”가 있다. 읽고 쓰고 개인 작업을 하며 나만을 위한 시간과 공간이 필요할 때, 나만을 위한 공간에서 휴식이 필요할 때, “공유 서재 오후”를 방문하자.

“공유 서재 오후”는 고요하고 아늑하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생각을 정리하거나 개인적인 작업이나 창작활동이 필요할 때 온전히 몰입하는 공간이다.

도서관도 카페도 서점도 아닌 공유 서재라는 말이 낯설 수도 있다. 책이 있고 따뜻한 차 또는 커피를 마시며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는 따뜻하고 아기자기한 공간이다. 혼자 이용 할 수 있는 1인 테이블 세 자리와 4인 테이블이 있다.

네이버를 통해 예약제로 운영하고 이용권을 구매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한 시간에 최대 5명의 인원을 받는다. 티백과 드립백, 미니 쿠키가 준비되어 있고 따뜻한 차 한잔과 함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최소



공유서재 오후 내부

3시간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독서 모임, 소모임, 대관도 네이버 톡톡으로 상담 문의하면 된다.

따뜻한 봄기운이 가득한 3월에 “공유 서재 오후”를 예약하고 방문했다. 깔끔한 내부 인테리어는 부드럽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창가의 커튼은 몰입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고 있었다. 공간을 위해 운영자가 소장한 책과 구매한 책을 갖춰 놓았는데 누구라도 쉽고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미스다 마리 책, 시, 그림책, 예술·과학, 소설, 에세이 책들을 볼 수 있었다. 개인 책상에는 따뜻한 조명과 책 그리고 오후의 기록을 남기는 메모지가 있는데 책에서 만난 문장을 기록할 수도 있다.

공간 운영자인 이영진님은 누구보다 나만의 공간이 필요할 때, 한적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찾다가 직접 공간을 만드셨다고 한다. 삶의 소소한 기쁨과 행복을 더불어 나누기 위한 것들로 공간을 채우셨다고 한다. 오후라는 이름도 오후 시간을 글이 주는 힘과, 나를 사유하는 시간을 채우기 위함이다. 2024년 12월 말에 공간을 열고 3개월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예약자들은 20대에서 40대 여성 고객이라고 한다. 무인으로 운영하는 공간이지만 예약한 사람들을 위해 미리 공간을 정리하고 음악을 틀어놓고 정돈한 후 미리 문을 열어놓는다고 한다. 공간을 이용한 예약자가 깨끗하고 아늑한 공간에서 나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며 마음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며 좋은 에너지를 가득 받아 너무 감사하다는 연락을 받았던 마음 따뜻했던 순간을 나눠주셨다.

따뜻한 커피 한잔과 좋아하는 것들로 나를 채우고 싶은 오후, 나만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 편안하고 고요한 서가이자 카페이자 독립된 공간인 “공유 서재 오후”를 방문해 보자. 숨이 되어 주는 공간, 누구나 그런 공간이 필요할 때가 있다.

- 위치 : 대전 유성구 지족로 240, 노은 해랑 숲마을 5단지 상가 102호
- 예약 : 네이버에 예약, 월~토, 12:00~18:00 대관은 네이버 톡톡 문의
- 예약 시간 : 최소 3시간 단위로 예약제 운영,
- 이용 금액 : 3시간 9,000원,
- 공간 내 드립커피와 티백, 간단한 쿠키가 비치되어 있음



버찌책방

숲과 마음을 잊는 버찌책방 조예은 대표

유성문화원 황인동 기자



버찌책방 내부

어린이와 함께

대전 유성구 반석동 우봉산(갑하산) 자락 아래 전원주택이 있다. 버찌책방은 그와 함께 둑지를 틀고 있다. 책방지기 가족들이 직접 설계해서 지은 전원주택 1층에 자리하고 있다. 전원주택과 맑은 공기, 새소리가 어우러 지는 곳이다. 책이 채우고 사람이 완성하는 곳! 더불어 함께 읽는 버찌책방, 동네 독립서점이다.



조예은 대표

조예은 대표(이하 조대표)는 6년째 책방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외대 프랑스어과를 졸업했다. 유럽문학을 바탕으로 서적을 추천하고 구비했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유아도서를 같이 취급하고 있다. 작가와의 만남, 독서모임, 전시회 등을 하고 있다. 책 경험을 공감각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여행 작가로 외부 강의도 많이 했고 책도 출간했다. 독서모임은 어른모임, 그림책모임, 고전모임, 의사그룹 마음산책 등이 있다. 유성구청과 연계하여 아동교육관련 책 만들기, 마을 사업도 하며 강사로 활약하고 있다.

버찌책방은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책과 관련한 전시 및 대여, 판매하는 열린 공간이다. 사람들의 순수한 마음과 함께 하는 버찌책방이다. 별도의 전시 및 대여전용공간, 코너 전시공간을 활용하여 책을 홍보하고 있다. 책방지기 (조대표)에게 편히 문의하면 친절히 알려준다.

경기가 좋지 않아 현상유지를 하는 것이 급선무다. 서점 바깥에서 운영하는 자동차책방, 학교로 찾아가는 버찌 책방을 운영한다. 이동도서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출판사와의 연계를 적극적 하고 있다.

방을 찾는 책 벗들에게는 공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공간에 머무는 모두의 기쁨을 위해, 책방 이용 전 안내를 하고 있다.

서점 운영은 불경기로 인해 녹녹치 않다. 이 위기를 이겨 나갈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만들어 묘책을 내어 놓아야 한다. 잘 이겨내서 숲속 도서관으로 살아남길 바래본다. “사람이 희망이다” 도서관을 찾는 사람이 희망이다. 작은 책방을 하면서 희망의 씨앗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됨을 체득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고리로서의 버찌책방이 더욱 번창하길 기대해 본다.

책방 이용 전 안내

모든 도서는 판매용 도서이다



읽어보고 구매하도록 열어두었다. 도서는 서가 앞에서 읽고 음료와 함께 착석 시에는 도서 구매 후 읽어주길 당부한다. 훠손 시 판매가 어렵다.



책을 읽기 위한 공간이다

버찌책방은 책 읽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한다. 곁에서 더불어 읽는 책벗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나누는 대화는 자제해야 한다. 어린이를 사랑하는 책방 이지만 정원을 훠손하거나 뛰어다니지 않도록 보호자께 다정한 지도를 부탁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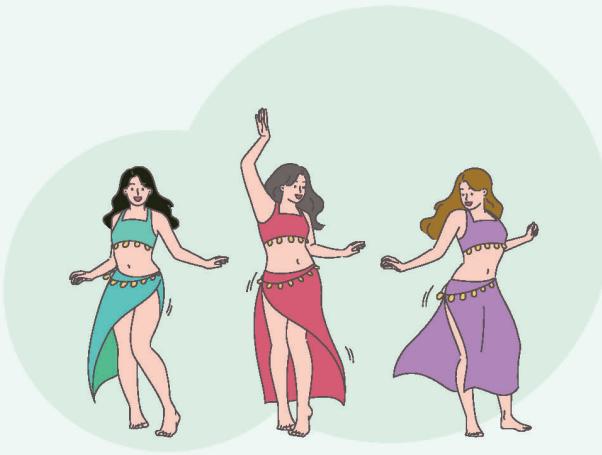
반려동물을 환영한다

반려동물은 이웃이자 인류의 가족이다. 입장도 가능하다. 짖거나 배변 행위를 하려는 동물들은 외부의 도그훅을 이용하면 된다. 주변에 계신 책벗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반려인의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다.

몸과 마음을 활기차게 만드는 다이어트 밸리댄스

유성문화원 김태균 기자

현대인들은 오랜 시간 앉아 있는 생활 습관으로 인해 '건강 문제'와 '체형 불균형'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건강과 다이어트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밸리댄스(Belly Dance)'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밸리댄스는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유래한 전통 춤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공연예술이다.



최근 유성문화원에서는 '다이어트 밸리댄스 강좌'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 강좌는 수강생들이 신나는 음악과 함께 몸을 움직이며 건강과 활력을 되찾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월요일, '다이어트 밸리댄스 강좌'를 취재하기 위해 유성문화원 4층 예체능실을 찾았다. 신나는 아랍팝이 울려 퍼지는 교육장. 역동적 움직임과 화려한 의상으로 중동 국가에 온 듯하다.

10여 년째 밸리댄스 강사로 활동 중인 흥지성 지도 강사를 만났다. 강사는 "밸리댄스는 흔히 '춤추는 요가'라고 불리며, 우리 몸을 유연하게 만들고 체형의 균형을 맞추는 데 효과적이다. 특히 복근을 사용하는 동작이 많아, 복부비만 예방과 허리 근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호흡을 깊게 사용하기 때문에 내장지방을 줄이는데도 효과가 있다. 그래서



흥지성 강사

다이어트를 고민하는 여성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가 높다."고 말한다. 지난 2023년 강좌를 개설했지만, 당시 수강생이 10명 미만이라 운영되지 못했다. 올해 개설한 두 번째 강좌에는 평소 밸리댄스에 관심 있던 분들과 꾸준히 해오던 분들이 많이 등록했다."며 강좌 첫 개설 소감도 전했다.

밸리댄스의 또 다른 장점은 '체형 개선'과 '자세 교정'이다. 평소 잘 사용하지 않는 근육들을 움직이고, 역동적인 동작과 꾸준한 연습을 통해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수강생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다. 바로 "유연성과 근력 강화 덕분에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남녀노소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가 확 풀리면서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러한 매력 덕분에 많은 이들이 취미 또는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밸리댄스를 시작한다. 10여 년째 밸리댄스 강사로 활동 중인 강사도 그중 한 명이다. "처음에는 다이어트 목적으로

밸리댄스를 시작했다.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직장인이어서 일상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고 싶었다. 어느 날 찾아온 밸리 댄스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며 "밸리댄스를 춤 때 가장 행복했기에 지금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사는 최상의 강의를 하고자 하루 수 시간씩 개인 연습을 하며, 다양한 자료를 연구하고 안무를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수강생이 밸리댄스에 대한 '재미'와 '즐거움',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강사의 이러한 노력 덕분에 수강생들이 밸리댄스의 다채로운 매력을 경험하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이들이 밸리댄스 강좌에 참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수강생 김미숙 씨는 "밸리댄스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여가 활동이다. 꾸준히 연습하면 건강과 성취감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많은 분이 밸리댄스를 배워서,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유성문화원에서 펼쳐지는 우리춤체조의 매력

유성문화원 박성혜 기자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프로그램, ‘우리춤체조’가 유성문화원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우리 전통 춤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체조 형식으로 재구성한 이 프로그램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무대다. 민요뿐만 아니라 외국 민속 음악과도 접목해 새로운 작품으로 선보이며, 참여자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유성문화원의 우리춤체조 최민희 강사를 만나 프로그램의 특징과 목표, 그리고 예비 수강생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들어보았다.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하는 우리춤체조

강사는 “우리춤체조는 연령과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저희 반에는 5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하고 있으며, 남성분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로 운영되다 보니 수업 분위기가 가족적이고 따뜻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이 좋아지는 수강생들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라고 전했다.

단순한 체조가 아닌 전통 춤의 멋과 정서를 담아낸 우리춤체조는 배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유대감이 형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한국적인 움직임을 바탕으로 구성된 동작들이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최민희 강사

우리 춤의 멋과 흥을 대중화하는 것이 목표

강사는 “우리 춤의 멋과 흥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대중화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작품을 구성하고 지도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전통 춤이라고 하면 어렵고 복잡하다는 선입견이 있지만, 우리춤체조는 이를 허물고 누구나 부담 없이 배울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통 춤이 가진 깊은 멋과 정서를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자 한다.

예비 수강생들에게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

마지막으로 강사는 예비 수강생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우리 춤이라고 하면 어렵고 느껴지거나 도전하기 두려운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훨씬 쉽고 재미있어요. 결국, 우리나라 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겁내지 말고 도전해 보세요. 제가 끝까지 이끌어드릴 테니 함께 도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사의 열정과 애정이 담긴 수업을 통해 수강생들은 단순한 체조가 아닌 전통 춤의 매력을 느끼며 건강까지 쟁길 수 있다.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단련하며 전통의 멋을 즐길 수 있는 유성문화원의 우리춤체조. 건강과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이 특별한 기회,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도전해 보는 것은 어떨까?

왈츠, 두 사람이 그리는 하나의 곡선

유성문화원의 박경민 댄스스포츠 강사를 만나다

유성문화원 임두리 기자

넓은 흘 안에서 펼쳐지는 우아한 선율.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의 움직임이 하나가 되어 섬세한 스텝으로 공간을 가득 채우는 모습은 마치 사랑에 빠진 연인의 대화처럼 부드럽다.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스포츠, 왈츠의 매력을 경험할 기회가 유성문화원의 문화교실에서 열렸다. 그곳에서 박경민 댄스스포츠(왈츠) 강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Q. 강사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원래 무용 전공으로 학원을 운영하다가, 20대 후반에 댄스스포츠 선수로 전향하게 되었어요. 댄스스포츠가 크게 스탠다드 댄스와 라틴아메리카 두 종류로 나뉘는데, 저는 그중에서 스탠다드 댄스 선수로 활동했어요. 프로 선수를 하려면 스탠다드 댄스의 다섯 가지 종목을 모두 시현할 수 있어야 해요. 그때만 해도 댄스스포츠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많지 않아서 주로 서울에 가거나 외국 강사분들을 통해서 배웠어요. 선수 생활을 은퇴한 다음에는 제자들을 키우고 심판으로 활동하다가 몸이 좀 안 좋아지면서 1년 정도 휴식기를

가졌어요. 이후에는 댄스스포츠 전문인을 양성하는 학원보다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센터에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Q. 유성문화원에서는 언제부터 강습을 시작하셨나요?

1월부터 강의를 개설하게 되었어요. 수강생은 주로 아이들이나 어르신들 위주로. 요즘은 아마추어 대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수강생 중에도 취미를 넘어서 대회에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즘은 50대, 60대 어르신들도 대회에 많이 참가하세요. 댄스스포츠가 예전보다는 생활체육쪽으로 더 발전하고 있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Q. 무용에서 댄스스포츠로 전향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큰 교통사고가 두 번 있었어요. 첫 번째 사고가 났을 때 잘못 하면 못 걸을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발레단에 들어가서 무용수가 되려던 원래 꿈을 접고 학원을 운영하던 중에, 우연히 댄스스포츠 대회를 접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한번 큰 사고가 있었으니까, 내가 안 다치고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고요. 망설이던 중에 지도해 주는 선생님이 용기를 주셔서, 늦은 나이지만 전향을 하게 됐어요. 댄스스포츠를 하면서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꼈어요. 내가 춤을 출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기쁨, 그리고 무대 위에서만 춤을 추는 무용과 달리 댄스스포츠는 체육관이라든지 큰 품에서 무대를 한 바퀴 돌아야 하거든요. 거기에서 느낄 수 있는 현장감이 무대 공연하고는 또 다른 흥열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무용 학원을 과감하게 접고 이쪽으로 전념하게 됐습니다.

Q. 스탠다드 댄스 중에서도 왈츠를 가르치시는 이유가 있나요?

스탠다드 댄스 다섯 종목으로 왈츠, 탱고, 폭스, 비엔나 왈츠, 쿠스텝이 있어요. 이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왈츠예요. 왈츠를 배워야 다른 종목들을 배울 수 있어요. 라틴 댄스와 달리 스탠다드 댄스는 그 공간을 한 바퀴 다 돌아야 하니까, 춤을 추는 길에 맞춰서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하면서 일정한 회전량이 나와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종목이 왈츠예요.

Q. 강사님이 생각하시는 왈츠의 장점이 있나요?

신체 건강에 도움이 돼요. 왈츠를 추면서 라이젠플이란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계단을 오르내리듯이 앉았다 섰다하면서 발목 근육을 강화하는 거예요. 또 수업하면서 척추를 똑바로 세우게끔 스트레칭을 많이 시켜드려요. 음악과 함께 상대방과 호흡을 맞추면서 자연스럽게 라이젠플 운동을 하는 게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해요.

Q. 언제 특히 보람을 느끼시나요?

잘 못하시던 분들이 동작을 잘 따라 하실 때 굉장히 뿌듯하죠. 젊다고 무조건 잘하고 나이가 들었다고 무조건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수강생분들도 '아유 나이 먹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그런 분들이 땀 흘리면서 열심히 수업 따라와 주시는 거 보면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Q. 강사님께서 앞으로 이루시고 싶은 개인적인 목표나 바람이 있을까요?

이 수업이 좀 더 많이 홍보되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웰리티 있는 춤을 추고 싶은 분들에게 소문이 나서, 발표회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인원도 모이고. 그래서 유성문화원의 댄스스포츠 왈츠 수업은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어 있고, 거기는 정말 나도 들어가고 싶은 게 꿈이다. 그런 소문이 날 만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기대어 만들어가는 우아한 움직임이 매력적인 왈츠. 바쁜 일상 속에서 앞만 보고 달려온 걸음을 잠시 늦추고, 내 곁의 누군가와 발을 맞추며 음악의 흐름에 몸을 맡겨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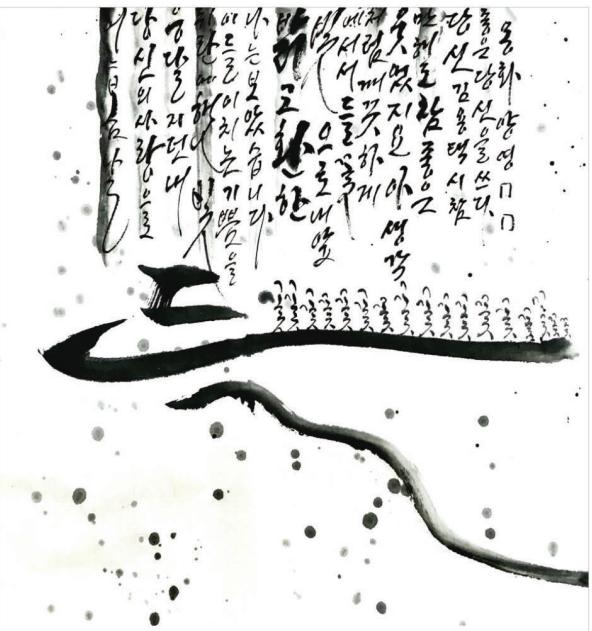
글씨는 문화의 힘! 마음을 담는 캘리!

토탈캘리그라피 강사 양영

유성문화원 황인봉 기자

유성문화원의 강의 중에 토탈캘리그라피가 있다. 캘리는 서예에서 표현하지 못하는 분야를 표현해 내는 것이다. 이 분야에서 확고한 자리를 점하고 있는 양영 강사! 그는 전주향교에서 처음 천자문과 서예를 배웠다. 원광대학교 미술대학에서 서예를 전공, 동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을 전공했다. 문화원,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했다. 시간 날 때마다 이응노 미술관을 방문했다. 이응노선생님께 감응 받아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토탈캘리그라피는 전각에 판화기법까지 융합시킨 것이다. 밤잠을 안자고 노력하여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 내가 써서 행복하면 최고의 만족이다. 우리 한번 사는 인생이다. 그러기에 발자취를 남겨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슬로건과 교육철학으로 열정적으로 강의에 임한다. 영화 <관상>에 출연하여 얼굴을 알리기도 했다. 배고플 때, 배부를 때, 슬플 때도 작업을 이어갔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배운 미술교육 원리를 이해하고 강의에 적용하려 했다. 강사 개인의 학문적 성장과 전문강사로서 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다. 글씨는 문화의 힘이다. 마음을 담는 캘리인 것이다. 자신이 써서 행복한 캘리로 완성하는 것이다.



수업의 특징

본 수업은 글씨를 체본이나 교재를 보고 잘 쓰는 1차원적이고 기계적인 수업이 아니다. 남·녀·노·소 개인의 수준에 맞는 1:1 수준별 교육을 한다. “글씨는 그 사람이다”라는 서여기인(書如其人)이라는 말처럼 글씨에는 조형적 미감과

해학이 있다. 희·노·애·락이 스며든 인문학 캘리그라피까지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글씨의 모든 서체를 종망라하여 문자예술의 확장을 꽤한다. 글씨를 돌에 새겨 표현하는 ‘전각’(篆刻)이라는 장르와 융합하여 강의를 하고 있다. 회화적인 장르와 재료학적 기법을 표현해 낸다. 미적가치와 예술의 수준을 보다 다양한 컨텐츠를 통하여 강의하고 있다.

수업의 방향성과 목표

삶의 질이 풍요로워진 만큼 정신적 풍요도 함께 따라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글씨는 문화의 힘! 이다.’라는 슬로건을 스스로 정하여 마음 속에 담고 있다. 강사생활 15년이 경과 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써서 행복하고 즐거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어린 아이들이 말을 배우고 그림으로 의사표시를 하고 있다. 이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림 그리기의 당연한 의사전달 도구라 볼 수 있다. 오히려 커가면서 그림이 안그려지게 되고 학교·취업 등에 우선 순위를 빼앗긴다. 설자리가 다른 분야에 비해 약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이지만 토탈캘리그라피 수업방식을 장려하고 글씨를 좋아하는 매니아 층이 많아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개발을 하는 것이 목표이다.

수강생에게 한마디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기후위기, 국제정세, 국내상황, 생명경시 풍조 등으로 말미암아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는 누구이며 과연 나는 누구인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다양한 즐거운 여가생활도 필요하다. 정신적 소양에 문자예술인 서예, 캘리그라피, 문인화, 전각이 지니고 있는 매력에 빠져보길 바란다. “마중나가 기다리고 있겠다.” 대전 서예대전 한마당에 참가하여 대작을 남기기도 했다. 양영강사의 분야는 독특하고 확실하다. 그의 앞날이 영롱하게 빛나길 바란다.

전통의 선율 속에서 피어나는 즐거움 가야금병창

유성문화원 박성혜 기자



전통음악의 아름다움을 배우고 즐기는 공간, 유성문화원의 가야금병창 강좌가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가야금과 소리를 함께 연주하는 가야금병창 수업을 이끄는 강사를 만나 수업의 특징과 목표, 그리고 수강생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들어보았다.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하는 화목한 배움터

유성문화원의 가야금병창 강좌는 4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수강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모든 수강생이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업 분위기는 매우 화목하다. 강사는 “처음에는 기존 회원들이 주도적으로 분위기를 이끌었지만, 점차 신규 회원들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모두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특히, 수강생들은 강사를 딸처럼 여기며 따뜻한 정을 나누는 것이 수업의 큰 장점 중 하나다.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가야금병창

강사는 가야금병창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아닌 취미로 배우는 이들을 위해 스파르타식 교육이 아닌, 쉽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복선영 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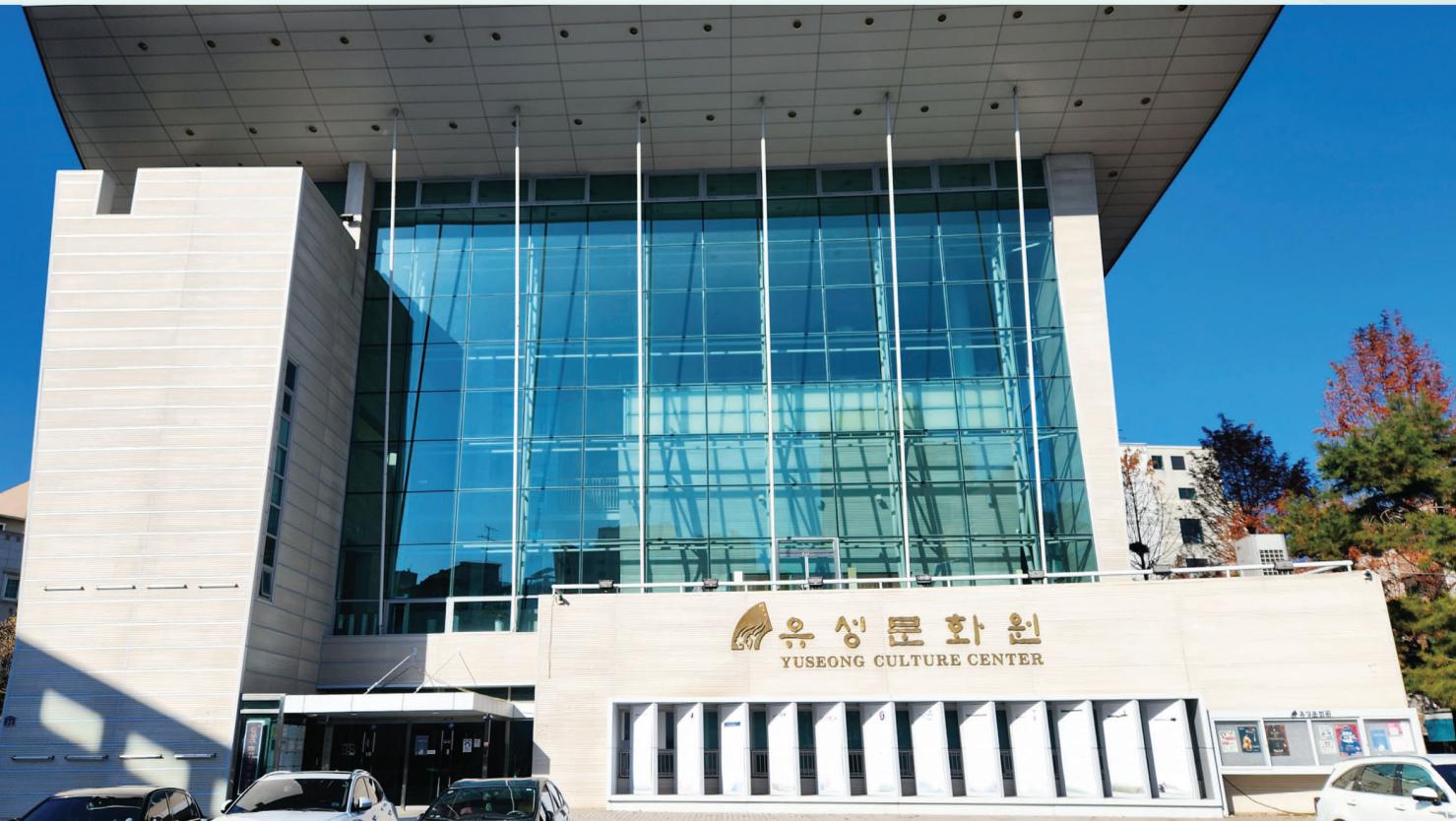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연이 있을 때는 연습을 하면서도, 서로 모르는 부분을 알려주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처음에는 악기와 소리를 함께 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재미있고 쉽게 지도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며 강습 방향성을 밝혔다.

초보자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수업

국악은 어렵고 지루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로 수업을 경험한 수강생들은 늘 웃음이 가득하다. 강사는 “지금까지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 수강생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예비 수강생분들도 부담 갖지 말고 도전해 보셨으면 합니다. 초급반과 중급반을 나누어 초보자들도 무리 없이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니, 가야금병창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 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전통 음악의 향기를 느끼며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성문화원의 가야금병창 강좌. 음악을 통해 하나 되는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다면, 지금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





제4기 유성문화원 기자단, 2024년을 마무리하며

유성문화원 김태균 기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이 있다면 ‘시간’ 일 것이다.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 일 년 365일이 주어지지만, 시간의 속도에는 각기 다르게 느껴진다. 2024년이 저물고, 2025년도 벌써 ‘3월’이 접어들었다. 눈 깜작할 세 1년이 지나고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해를 맞이했다. 지난 한 해 바쁜 만큼 행복한 시간을 보낸 분들이 있다. 바로 ‘제4기 유성문화원 기자단’이다.



2024년 12월 10일 화요일, 유성문화원 3층 라온마실에서 제4기 유성문화원 기자단이 모여 종무식이 열렸다. 이번 기자단은 지난해 3월부터 약 10개월간 활동하며 유성문화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 왔다. 종무식에서는 그간의 활동을 되돌아보며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로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기자단 한 명 한 명은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유성문화의 가치를 알릴 수 있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환영 및 축사로 시작해 기자단 활동 보고, 우수 기자 시상 및 부상 전달, 소감 발표,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기자단은 약 10개월간 활동하며 유성구 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발굴해 수십 개의 기사를 작성하며 지역사회에 큰 관심을 받았다.

활동 기간 중에는 유성구의 축제공연, 문화 이야기, 유성구 사람들 등 지역의 다채로운 주제를 취재하며 유의미한 내용을 다뤘다. 특히 즐길거리, 해볼거리, 맛볼거리 등 유성구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소재를 다뤘다. 또한 이번 유성문화원 기자단은 특히 20대부터 70대까지 전 연령대 참여해 활발히 취재 활동을 이어갔다. 이에 세대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지역 문화를 폭넓게 조명할 수 있었다.

종무식 현장에서는 간단히 소감을 나누기도 했다. 한 기자는 “처음에는 기사 쓰기가 어려웠지만 취재 활동을 하며 지역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어서 뿐만 아니라 기쁨을 느꼈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기자는 “유성구 문화와 관련해 직접 취재하며 견문이 확장된 기분을 느꼈다.”며 이번 활동을 통해 새로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어 기쁘다는 이야기도 했다. 이처럼 기자들은 10개월간의 취재 경험을 통해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끌이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다가 사람들과 소감을 나누는 순간에 떨컥 실감이 났다. 그동안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했고, 정말 행복했다. 사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활동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차치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유성문화원 직원 분들의 지지와 격려 덕분에 끝까지 힘을 낼 수 있었다. 앞으로도 어디에 있든 이전의 나처럼 '유성 문화'를 몰랐던 사람들에게 문화유성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

비로소 10개월간의 활동이 마침표를 찍었다. 마지막으로 유성문화원과 문화유성을 널리 알리고 활발히 활동한 모든 기자단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이번 종무식은 기자단의 노고를 격려하고, 그간의 활동에 대해 감사함을 나누는 따뜻한 자리였다. 기자단분께서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전하며 마음이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 또한, 이번 제5기 유성문화원 기자단의 활동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4기 기자단 인터뷰



김태균 기자

Q 유성문화원 기자단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지난 한 해 유성문화원 <문화유성> 기자단으로 활동하며 유성구의 다양한 축제와 마을 이야기 등을 취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유성의 문화적 가치와 지역예술인과 지역민의 문화적 품격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이에 유성의 우수한 문화적 가치와 문화적 품격을 전달하고 싶어서 다시 한 번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문화유성을 통해 유성시민들에게 가장 알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더 많은 분이 유성의 향토 문화유산과 전통 문화예술을 알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특히 지난 한 해 가족 건강에 이상이 있었는데, 축제와 문화 활동 등을 함께 경험하며, 걱정과 고민은 잊고 몸과 마음을 동시에 힐링할 수 있었습니다. 문화유성을 통해 이 값진 경험을 더 많은 분이 누리길 기대합니다.

Q 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가장 흥미롭거나 뿌듯했던 경험은 무엇인가요?

유성에는 사계절 테마형 축제가 있습니다. 봄에는 유성온천 문화축제, 여름에는 유성 재즈 & 맥주 페스타, 가을에는 유성국화축제, 겨울에는 유성온천 크리스마스 축제가 열립니다. 계절 테마로 유성만의 재미와 활력을 느끼며, 유성의 발전과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성은 온천이 있어 더 아름답고, 선비의 기품이 있어 더 궁금하고, 과학도시이기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곳입니다. 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유성의 매력을 하나하나 발견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Q 기자단으로 활동하는데 있어 본인만의 노하우나 tip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현재 저의 MBTI 성격유형은 'INTJ'입니다.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략가'라고 합니다. INTJ에게 적합한 직업 군중 하나가 '기자'이기도 합니다. 지난 한 해 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더 나은 글이 나올 수 있도록 새로운 아이디어를 메모하고 실천했습니다. 지금도 자료 수집, 인터뷰 질문, 사진 촬영 등 더 발전할 방법을 고민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자단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 저의 노하우는 '아이디어 메모'라고 생각합니다.

Q 유성문화원에서 발간하는 '문화유성' 책자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유성문화원 문화유성 기자단 활동을 시작하게 되어 두근두근 설렘과 단단한 책임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지난 한 해 왕성한 활동을 하지 못해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이에 다시 한 번 문화유성 관계자분들과 동료 기자님의 활동을 배워가며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Q 앞으로의 활동에 임하는 다짐은 무엇인가요?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문화 소식과 재미와 매력을 알리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유성의 문화적 품격을 알리고 지역 예술인과 지역민의 진솔하고 담백한 이야기를 담아내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4기 기자단 인터뷰



박성혜 기자

Q 유성문화원 기자단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효문화진흥원 서포터즈로 활동했던 박성혜입니다. 유성구 친화도시 시민단, 도시철도공사 시민모니터단, 대전시 자치경찰위원회 시티즌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문화와 역사를 깊이 이해하고 널리 알리고자 유성문화원 기자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유성의 다양한 문화 소식을 취재하고 기록해 많은 이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문화유성을 통해 유성시민들에게 가장 알리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유성구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적 유산, 다양한 문화자산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그 중심에는 유성문화원이 있지만, 아직 많은 시민들이 이곳의 강좌와 특강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자이자 수강생으로서, 윤정애 강사님의 특강과 같이 알찬 프로그램의 가치를 실감했기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의 유연성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성문화원의 진정한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Q 기자단 활동의 노하우는 무엇인가요?

저의 좌우명은 '항상 성실하자'입니다. 한 줄, 한 문장에도 정성을 다해 신중하게 고민하며, 취재한 내용을 정확하고 생생하게 전달하려 노력합니다. 어떠한 일정이든 5~10분 일찍 도착하는 습관으로 시간을 철저히 지키며 성실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Q '문화유성' 책자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문화유성'은 유성의 문화, 역사, 그리고 지역사회의 이야기를 담은 소중한 기록물입니다. 이 책자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성문화원의 가치를 알리는 계기가 되어, 유성구를 넘어 대전, 전국, 나아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 콘텐츠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기자로서 저 또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 가치를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Q 앞으로의 다짐은 무엇인가요?

기자단 활동을 통해 유성문화원의 다양한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시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돋겠습니다. 유성의 역사,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어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 기자

Q 유성문화원 기자단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반복되는 일상 속에 새로운 활동이 없을까 찾아보던 중, 유성문화원 기자단 모집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발견하자마자, 아! 이거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고 가며 봐왔던 유성문화원이라는 것이 반가웠습니다.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주최하고 있는 유성문화원 기자단 활동을 통해 유성에 대해 더 알아가고 좋은 정보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Q 문화유성을 통해 유성시민들에게 가장 알리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유성에도 볼거리, 즐길거리가 일상 속에 숨어있다는 것을 유성시민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큰 부담을 갖지 않고, 동네 나들이로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미를 함께 즐기고 싶습니다.

Q 앞으로의 활동에 임하는 다짐은 무엇인가요?

유성문화원 신입 기자로서 아직 배워야 할 점이 많겠지만, 기존에 하시던 분들의 노하우와 유성문화원 관계자분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흥미롭고 알찬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Q 유성문화원에서 발간하는 '문화유성' 책자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문화유성'에는 좋은 소식들이 많이 담겨있는 만큼, 많은 유성 시민들이 소식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유성 발간지를 유성문화원 홈페이지 한켠에 잘 보이는 위치에 배너가 들어가면 좋을 듯합니다.





4기 기자단 인터뷰



임두리 기자

Q 유성문화원 기자단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학과 홈페이지를 통해 유성문화원 기자단 모집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후 유성문화원이 평소 자주 오가던 길목에 자리한 문화예술기관임을 알았습니다. 유성구에 거주하면서 이처럼 가까운 곳에 있는 문화예술기관을 모르고 지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작은 부끄러움을 느꼈고, 유성문화원과 지역의 문화 소식을 알리는 일에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유성구의 다양한 행사와 볼거리를 취재하고,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저 자신도 한층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여 유성문화원 기자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 문화유성을 통해 유성시민들에게 가장 알리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강사,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유성구 주민들의 이야기를 취재하여 전하고 싶습니다.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개인주의가 두드러지면서 이웃 간 소통이 단절되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문화유성〉을 통해 지역의 소식을 공유하는 소통 창구가 되어 이웃들의 소박하고 인간적인 삶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담긴 가치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문화유성〉이 이웃 간의 거리감을 완화하고 서로를 더욱 친밀하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Q 기자단 활동에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기자간담회에서 안내받은 앞으로의 취재 행사 중 ‘유성온천수신제’가 기대됩니다. 기회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취재하여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Q 기자단으로 활동하는데 있어 본인만의 노하우나 tip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아직 구체적인 노하우는 없지만, 사전에 취재 대상에 대해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해 놓으면 취재 방향을 설정하고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취재 현장에서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들을 틈틈이 메모하는 습관도 기사 작성 과정에서 생생한 표현을 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유성문화원에서 발간하는 ‘문화유성’ 책자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책자가 조금 더 유동 인구가 많은 곳, 사람들의 눈에 띄는 장소에 배치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화유성〉 속에는 유성문화원이 추구하는 가치와 좋은 글들이 담겨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하여 널리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Q 앞으로의 활동에 임하는 다짐은 무엇인가요?

기자증을 발급받고, 스스로를 기자라고 소개하며 누군가를 취재하고 글을 쓰는 모든 과정이 생소한 만큼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문화유성〉 책자에 한편의 글을 실는 데에는 여려 사람들의 협력과 노력이 뒷받침된다는 점을 유념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진정성 있는 기자로서 활동하겠습니다.



전소영 기자

Q 유성문화원 기자단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유성문화원 기자단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지난해의 경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타 기관에서 대전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는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전의 다양한 소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전은 역사와 문화, 그리고 지역 특색이 풍부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매력을 충분히 조명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대전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기사를 작성해 보고 싶다는 열정이 생겼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던 중, 대전에서 진행하는 기자단 모집 공고를 찾아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유성문화원 기자단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유성문화원은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이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자단 활동이 저에게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기존에 기자 활동을 하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유성문화원 기자단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단 모집에 지원하게 되었고, 다행히 합격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유성문화원의 다양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성실히 활동하며, 지역 문화의 가치를 알리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Q 기자단으로 활동하는데 있어 본인만의 노하우나 tip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제가 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사전 조사입니다. 행사 취재나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에 관련 정보를 충분히 조사하면, 훨씬 더 깊이 있는 기사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행사 취재를 할 경우, 단순히 행사 현장에 가서 분위기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행사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있어야 보다 의미 있는 기사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식 홈페이지, SNS, 관련 기사 등을 미리 찾아보며 행사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를 정리합니다. 행사 취지, 주요 프로그램, 연혁 등을 미리 알고 가면, 현장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취재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미리 조사하고, 그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최근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해두면 더욱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정보 없이 인터뷰를 진행하면 피상적인 질문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취재를 할 때 메모를 철저히 하고, 사진도 충분히 찍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세부적인 정보들을 메모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두면 기사 작성할 때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기사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Q 앞으로의 활동에 임하는 다짐은 무엇인가요?

2024년 문화유성 책자를 보면서, 다른 기자분들의 뛰어난 원고 작성 실력을 보고 많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수준 높은 기사들이 많았고, 이를 통해 저 역시 더 발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기자단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배움과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새로운 시각에서 주제를 바라보고, 보다 깊이 있는 기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활동하며, 2025년에도 최선의 기사를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기 기자단 인터뷰



조윤서 기자

Q 유성문화원 기자단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학내 언론사에서 활동 중인 대학생입니다. 지난해에는 타 기관에서 대학생 신문기자로 활동하며 각종 취재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기자가 갖고 있는 강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명 ‘필터 버블(Filter bubble)’ 혹은 ‘정보 편식’이라 불리는 현상을 경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자는 다양한 정보를 파악한 후 객관성과 정확성에 근거해 중요한 사실을 전달합니다. 때문에 기자 개인의 관심사에서 그치지 않고, 다양한 정보 수집을 통해 폭넓은 사고를 겸비하는 기자의 역할에 매력을 느껴 이번 유성문화원 기자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오랜 시간 대전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유성문화원을 처음 알게 되어, 대전 시민으로서 그리고 문화원 기자로서 유성문화원을 새롭게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에 활동 의사를 밝히게 되었습니다.

Q 문화유성을 통해 유성시민들에게 가장 알리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유성문화원은 대전 유성구 궁동에 자리해 지역 예술의 발전과 시민들의 문화적 품격 향상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관의 목표와 체계가 분명함에도 저는 근 10년간 유성문화원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제 사례처럼 대전에 거주하는 유성 시민일지라도 유성문화원의 존재와 가치를 아직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유성 시민들에게 유성문화원이 진행하는 전시, 공연, 체험 프로그램을 알리고 지역 예술의 다양성과 깊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나아가서는 대전 시민들이 문화원에서 제공하는 풍부한 콘텐츠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유도하고 지역 사회의 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Q 앞으로의 활동에 임하는 다짐은 무엇인가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전 시민들에게 유성문화원의 숨은 가치와 프로그램을 새롭게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사를 작성하기 전, 철저한 자료 조사와 다각적 취재를 통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확보하고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료한 문체로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기자 활동을 통해 대전 시민들에게 유성문화원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만드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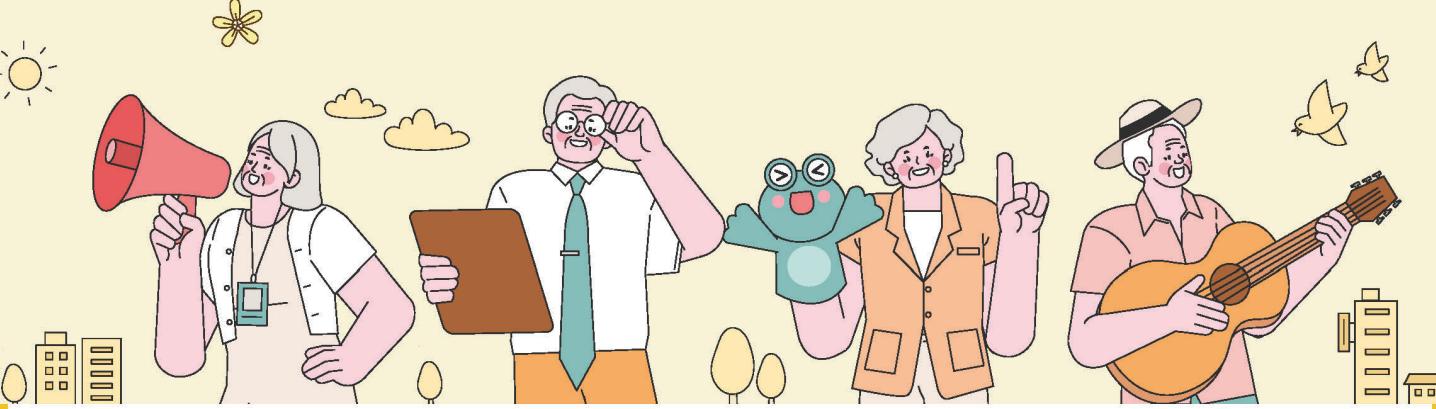
2025년 유성문화원 문화강좌 시간표

요일	프로그램명	강사	강의시간	수강료(3개월)	강의실(총)
월	김정선의 노래교실	김정선	10:00~12:00	60,000원	다목적실(2)
	한국무용(월요)	이현숙	10:00~12:00	60,000원	예체능실(4)
	가락장구장단	이춘옥	10:00~12:00	75,000원	전통문화실(4)
	한문서예(월요)	구경희	10:00~12:00	75,000원	취미교실(3)
	여섯줄 클래식 기타교실	홍소림	10:00~12:00	90,000원	라온마실(3)
	경기민요	이순임	13:00~15:00	60,000원	전통문화실(4)
	어반스케치	신지혜	13:00~15:00	75,000원	취미교실(3)
	다이어트밸리댄스	홍자성	15:30~17:30	129,000원	예체능실(4)
화	청풍명월	윤민숙	10:00~12:00	90,000원	예체능실(4)
	한글서예	윤병건	10:00~12:00	75,000원	취미교실(3)
	포크통기타 초급	이석진	09:30~11:00	90,000원	세미나실(3)
	포크통기타 고급(핑거스타일)		11:00~13:00	90,000원	세미나실(3)
	포크통기타 중급		14:00~16:00	90,000원	세미나실(3)
수	문인화	박경학	13:00~15:00	75,000원	취미교실(3)
	진도복춤	김원경	13:00~15:00	90,000원	예체능실(4)
	시조창	박학미	15:30~17:30	60,000원	취미교실(3)
	김숙자류입춤	김연의	10:00~12:00	90,000원	예체능실(4)
	넷생&수채화	김해숙	10:00~12:00	90,000원	취미교실(3)
목	경서도 민요와 장구	오현숙	10:00~12:00	90,000원	전통문화실(4)
	오카리나	한연호	13:00~15:00	90,000원	라온마실(3)
	판소리	지유진	13:00~15:00	90,000원	전통문화실(4)
	김소원 퓨전장구	김소원	10:00~12:00	90,000원	전통문화실(4)
	기초부터 시작하는 유화	최윤정	10:00~12:00	120,000원	취미교실(3)
금	우쿨렐레	백선경	10:00~12:00	90,000원	라온마실(3)
	우리춤체조	최민희	10:00~12:00	90,000원	예체능실(4)
	유화	송채례	13:00~15:00	120,000원	취미교실(3)
	댄스스포츠(왈츠)	박경민	13:00~15:00	105,000원	예체능실(4)
	댄스스포츠 라틴(초/중급)	이영린	18:30~20:30	90,000원	예체능실(4)
토	가야금	권정옥	18:30~20:30	90,000원	전통문화실(4)
	대금과 단소	이재천	18:30~20:30	90,000원	라온마실(3)
	해금(목요)	정다솔	18:30~20:30	90,000원	세미나실(3)
	태평무(오전)	강소정	10:00~12:00	90,000원	예체능실(4)
	한국화	김진순	10:00~12:00	75,000원	취미교실(3)
일	태평무(오후)	강소정	13:00~15:00	90,000원	예체능실(4)
	토탈 캘리그라피	양 명	15:30~17:30	90,000원	취미교실(3)
	가야금병창	복선영	15:30~17:30	75,000원	전통문화실(4)
	토요해금	정유라	10:00~12:00	90,000원	라온마실(3)
	한문서예(토요)	구경희	10:00~12:00	75,000원	취미교실(3)
월	댄스스포츠 라틴댄스(고급)	이영린	10:00~12:00	90,000원	예체능실(4)
	팬플루트(오전)	박상봉	10:00~12:00	90,000원	세미나실(3)
	팬플루트(오후)		12:40~14:40	90,000원	세미나실(3)
	유성농요	김숙희	12:40~14:40	60,000원	전통문화실(4)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모집기간 : 마감 시까지 상시 상담 접수

접수처 노인일자리 담당자 문의 042-823-3916



유성이알림단

연극, 손인형, 그림자인형
유성지역에 관련된 설화, 구전
동화 및 역사적 인물, 사건을
인형극 및 연극으로 지역사회
알리는 공연활동

유성이전통단

전통놀이 활동
지역행사 및 장기요양시설,
보육시설 등으로 전통놀이체험
및 전수하는 활동

유성이행복단

악 단

노래(트로트), 전통무용, 댄스,
다양한 악기 등으로 구성된
악단으로서 장기요양 시설로
방문하여 활동

유성이합창단

합 창

다양한 지역행사 및 장기요양
시설 등으로 합창공연을 통해
아름다운 하모니를 통해서
정서적 안정감과 공감대 형성
하는 활동

문화재지킴단

비지정문화재 지킴

유성구 관내 및 시·도 기관과
협조하여 비지정문화재 청결
및 정보수집하여 보존 알리는
활동



유성문화원 시설 대관 안내



층	장소	대관료	사용시간	초과 시간당	기타	냉·난방
1층	전시실 112㎡(약35평)	27만원(9시~17시) 54만원(full 9시 ~21시)	주간(월·화·수·목) 주말(금·토·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냉·난방, 조명 무료 전시 종료일은 5시까지 철거 완료 요망 	
2층	다목적실 무대/좌석 80석/ 자유석 20석	36만원 53만원 89만원	오전 09시~13시 오후 13시~17시 야간 17시~21시 종일 09시~17시 full 09시~21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형그랜드피아노 5만원 (피아노 조율비 사용자 부담) 빔프로젝터, 음향, 무선마이크(3) (노트북 사용자 지참) 	
3층	세미나실 좌석 50석	15만원		3시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선마이크(1) 빔프로젝터(노트북 사용자 지참) 	무료
	라온마실 무대/좌석 50석	16만원		2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선마이크(1) 이동식 빔프로젝터 3만원 (노트북 사용자 지참) 소형피아노 3만원 (피아노 조율비 사용자 부담) 	
4층	전통문화실	13만원			음향 없음	
	예체능실	13만원			음향 무료	

문화유성

YUSEONG Cultural Center

유성문화원 표지 캘리그라피

유성문화원 캘리그라피 강사 심혜순

발행인 이재웅

발행일 2025년 3월

등록번호 대전 라 01023

발행처 유성문화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원로 46(궁동)

전화 042)823-3915~6

팩스 042)823-3917

홈페이지 [www.yuseong.or.kr](#)

문화육성

2025
Vol.231
www.yuseong.or.kr



34167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원로 46(궁동)
Tel. 042-823-3915~6 Fax.042-823-3917